

사랑하듯
저는
살겠습니다

2박재호



세 번의 석패. 정말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함께 그 벽을 넘고자 합니다.

저는 꼭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세상]

[학력과 출신 보다는 노력이 더 인정받는 세상]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투표로 보여 주십시오.

저 박재호가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6년 4월,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재호**

부끄럽지만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에 입각한 '法'을 만들겠습니다

국가돈 떼어먹는 사람들!
악질 보험 사기 집단들!
서민 죽이는 악성 다단계
사기 집단들!
권력형 비리 사범들!

“살인”이라는 범죄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범죄로
몇 가정이 자살에 이르러도
“돈”만 있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세상.
엄한 “법”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아깝지 않게
하겠습니다.

강통주택 사기부터 생계형 자살까지...일그러진

지난해 보증금 및 배당이의 소송 1만2245...대부분 '강통주택' 부동산 침체와 과당경쟁으로 폐업 혹은 자살 중개업자 급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지난 7월 인천 중구 신흥동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분신해 사망했다. 이날 오전은 그가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

1만7294명과 1만2245건. 지난해 인종개사 수와 임대차 보증금 관련 소송건수다. 거래 감소 등으로 들어진 중개업자가 많은 동시 으로 잇속을 채우며 살아가는 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과 관

[단독]“재벌가 친하다” 16억 사기 당해 자살



평범한 약세사리 판매업 43살 여성 장모 씨는 사 러위지자 나쁜 꾀를 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재벌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

조희팔, 사기금액 4조원, 피해자 3만명, 10명은 자살 '혁'



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한 80억 원 내 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까지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 처럼 꾸며 조씨측의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사모님, 모범수로 특별혜택

[헤럴드경제] 얼마전 ‘여대생 청부살인’의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을 잃은 고통에 시달리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청부살인을 지시했던 영남제분 사모님 윤모 씨가 모범수로 지정되었고, 모범수중 선발된 인원만 모이는 특별 교도소에서 비교적 편안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SBS 뉴스8은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 이를 무마하려 했던 ‘청부살인’ 영남제분 사모님이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

범수 중 특별 심사에서 선발된 인원만 오는 화성 교도소에 ‘여대생 청부살인’을 지시한 영남제분 사모님 윤모 씨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교도소는 2009년에 세워진 곳으로 모범수로 지정된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에 대비해 제과 제빵이나 용접 같은 직업 훈련을 받는 곳이다. 또 모든 수용 동에 난방시설이 완비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윤 씨는 직업 훈련도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일반



동남권 신공항 유치

신공항은 복합 물류 허브인
부산의 필수 조건입니다.
신공항, 경쟁의 도구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 신공항,
박재호가 앞장 서겠습니다.

[통] 경제가 通한다

부산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경제자유구역청 -
북항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합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주변 생활환경까지도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광안대교~용호동 접속도로 건설

광안대교에서 용호동으로 들어오는 접속도로를
연결시킨다면 교통체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이어지는
부산 관광벨트 라인에서
이기대, 오륙도로 관광객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 또한 살아 날 것입니다.

우암동 철도 철거

그동안 우암동을 위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우암동을 포기하셨습니까?
박재호는 우암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암동 철도 폐쇄.
우암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 재개발 · 재건축 연계 주민 원탁 토론회 개최

[통] 길이 通한다



국립 어린이 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

LG메트로시티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부산 최초의 국립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하고
메트로 문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배로 확충! 교육비 절반으로

현재 11.7%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수를
30%로 확대하고 현재 13.5%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7%까지 늘리겠습니다.



아이 희망 두 배



가계 부담 절반으로

쓰레기봉투 값 절반

쓰레기봉투 값.
20L기준 서울 평균 431원 vs 부산 평균 813원
(남구 850원) 쓰레기봉투 값 할인으로
주민 여러분의 생활비를 아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지원시스템

장사는 안 되는데 꼬박꼬박 월세는 나가고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세금과 공과금까지 더해져
날아옵니다.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날짜도 다가옵니다.

- ❑ 공시지가와연동한 월세 상한제
- ❑ 권리금 지키기 프로젝트(권리금 소프트랜딩)



주민행복 두 배

백운포 체육공원을 생활체육시설의 메카로

백운포에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섭니다.
국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출신 박재호가
주민여러분들의 생활체육과 문화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두 배로

“공유경제”가 대세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과 후 교직원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 관리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르신 문화 공간 조성

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계신 어르신들.
자리도 편치 않은 벤치에 앉아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해 드릴 순 없을까?
6080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 천냥 급식소 운영
-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바둑 장기대국실 운영



어르신 희망 두 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1959년

박재호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불어과에 입학합니다.



1979년

부마 민주항쟁.
시위대의 물결 속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변혁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몸과 마음에 새겼습니다.



1986년

故서석재 의원을 만나
보좌관을 지내게 됩니다.
27살, 정치의 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 박재호



2004년

남구에서 김무성의원과 붙었던 첫 번째 선거.
45.11% / 31,918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지게 됩니다.



200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공단 역사상 최대 3조8천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운영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며
34살의 나이에 청와대에
근무하게 됩니다.
정무수석실 국장과 인사
재무비서관을 거치며
국가원리와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됩니다.



1999년

운명적인 노무현대통령과의 만남.
“내가 부산에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박재호는 새롭지만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2003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으로 일하며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2008년

남구에서 다시 도전했던 두 번째 출마.
〈친박연대〉의 그늘에 가려 또 다시 낙선하게 되고,
정치를 포기하려 합니다.



2012년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다시금
힘든 길에 나섰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가 맞붙었던
세 번째 선거에서 41.46%를 받고
또 다시 낙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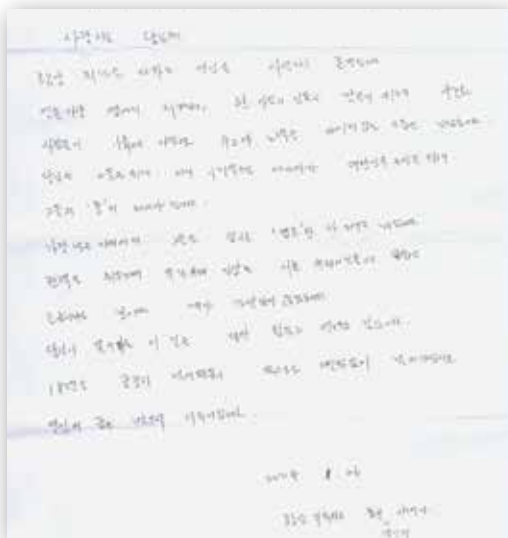
2016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도전입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중,
박재호후보의 아내 미선씨는 2015년 11월 14일
가족들을 두고 아름다운 이 세상「소풍」을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께

항상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열흘가량 옆에서 지켜보니,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들
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情으로, 사랑으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아니 이 지역구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그들의 ‘중’이 되어야 합니
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부패
일삼는 기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
이면 제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입니다. 18년을 곳곳이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변함
없이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4. 1. 26. 항상 부족하고 못한 당신의 아내가



여보,
아무것도 하지않을 비겁함 보다는
포기 앞에 무릎꿇지 않을 용기를
매 순간 나에게 줘요.
당신이 항상 강조하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언젠가 당신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남편이고 싶어요.



미선씨...

당신이 떠난 지 이제 네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당신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애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잊혀지는 게 두렵다고, 꿈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산대며
엄마를 잠시 잊었던 내가 원망스럽고 미안하다고...
이래도 바쁘지만 엄마랑 동생들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미선씨,
부엌 전처럼 미선씨가 옆에 없어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도 힘낼게요.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내년 봄에 좋은 소식으로 아이들과 찾아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선물입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2016년 3월, 못난 남편이...



2016.4.13.

여러분의
☺한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생보다 큰 정치는 없습니다.
정치를 바로 잡아야 민생도 바로 섭니다.

2016년 대한민국과 부산의 정치를 바로 잡는 일.
박재호가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밥 값**하는 정치를 선택하느냐?”

“민생을 외면하는 **밥그릇 챙기**는 정치를 또 선택하느냐?”

4월 13일,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남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f parkjaeho



@ourpark



pjh0586

꼭 투표하세요~^^

4월8일, 9일은 사전투표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산출생

동성고등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불어과 학사

중앙대학교 행정석사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제대

김영삼대통령 비서실 인사재무비서관(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전)

제17, 18, 19대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

2 박재호